



전남 목포에 모인 도시 청년들은 다양한 실험으로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column 01

- 서울 밖에서 일을 하는 당신에게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의외로, 서울 밖 지방 소도시에서 머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 서울을 떠나 전라남도 목포에서 사업한 지 3년째, 이곳에서 거의 50여 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났다. 함께 머물렀고, 머물고 있는 동료들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다가 이 곳으로 내려왔다. 대부분 그들에게 '목포'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고 미지의 영역이었다.

사실 나 역시 2017년 6월 6일 전까진 그랬다. 태어난 곳이 이곳이거나, 가깝고 먼 친척이 살고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어떤 연결 고리도 찾을 수 없는 이 지역에서 '공장공장'이란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불안한 시기에 불안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었다. 왜 여기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왜 불안한지. 여러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비우고(空場) 함께 채우는(共場) 과정을 반복한다는 의미로 공장공장(空場共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실험적이고 무모한 계획들을 갖고 살면서, 아직까지는 잘 먹고 잘 산다. 더러 인정을 받으며 꽤 잘 지내고 있다.

지금 여기의 작은 스타트업에는 공동대표를 포함해 열세 명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서울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동네로 꼽히는 광화문, 연희동, 만리동, 해방촌, 강남 뽕뽕 사거리 등에서 일을 했는데 그 시기와 비교해도 더 잘 지낸다. 왜 서울 밖으로 벗어났는데도 잘 지낼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서울 밖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서울 밖에서까지 권위적인 누군가가 시키는 일, 가족들이 바라는 일, 자존감을 깎아서 돈만 버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벌어들일지는 막막할지라도 조금은 더 좋아하는 일, 바라는 일에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 단순히 "서울 밖에서 살면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건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다. 사람은 '좋아하는'이란 문장이 붙으면 생각보다 더 오래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내지만 '어쩔 수 없어서'란 문장을 붙이면 쉽게 포기하기 쉽다.

둘째, 서울 밖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사람'이 거의 전부라는 생각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었다. 낯선 지역일수록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한 명에게 받는 영향이 막강했다. 우리가 '괜찮아마을'을 기획한 이유는 결이 비슷한 친구들을 동네에 초대하기 위해서였다. 지역일수록 사람이 전부인 걸 아니까.

셋째, 서울 밖에서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 건강을 살피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행인 건, 서울 밖으로 갈수록 조금은 더 그 여유가 생긴다. 교통이 덜 막히고 주차가 편하고, 바다와 산이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 서울 밖에서 오래 일을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마음 건강'을 챙겨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다니고, 매일 하늘을 보고, 의도적으로 바다를 보고 별을 보러 다닌다. 이게 서울 밖에서 사는 특권이고 마음 건강에 좋은 약이니까.

무조건 해피엔딩은 없다
서울만 벗어나면 행복이 있고 기회를 얻는 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 리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너무 뻔하고, 우리는 삶을 실험하고 싶어서 다양한 일을 벌인다. 기획사와 여행사, 출판사, 지역생활 입주 프로그램인 <괜찮아 마을>과 노마드 코워킹 공간인 <반짝반짝>까지. 어쩌면 '해피엔딩'일 수만은 없는 다양한 실험을 상상하며 벌인다.

여전히 서울 밖에서는 새롭고 실험적인 일을 만드는 사람들을 기다린다. 더 많은 친구들이 서울 밖을 떠나와도 괜찮다, 아직은 그렇다. 물론 무조건 해피엔딩은 없다. 매일 행복한 일상만 만나는 건 아니다. 누구는 매일 후회할 수도 있다. 그래도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기회는 서울 밖에도 있어."



글쓴이 **박명호**님은 실험주의자다. 전남 목포 공장공장(괜찮아마을 공동대표)에서 여러 청년들과 지역생활 실험을 하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기회와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살지만, 아직까지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실험주의자

너티 청정

vol.1

'다들 안녕'이란 인사를 담은 <헤이, 청정>



2020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인 <청정지역 프로젝트>의 이야기들을 담은 소식지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지역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발행처 청정지역프로젝트 운영사무국

발행일 2020년 6월 26일

문의 02-2135-8387 / info@youthstay.org

editor's letter

다들, 안녕

지역생활을 시작하신 청년 여러분, 반갑게 만나서 인사 나누는 게 늦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뉴 노멀'(새로운 일상)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헤이, 청정'(hey 청정)은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로 제작했어요. 근사한 '헤이 청정' 캘리그래피는 한종원 님(충북 괴산 한살림협동조합)의 작품입니다. 올해 청년들을 채용한 지역기업의 대표 두 분은 "지역이라는 기회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주제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역생활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이라 귀가 더 쫄깃해집니다. 강아지와 함께 출근하는 안동의 청년, 지역에서의 일상과 고민을 채집하는 상주 청년의 편지는, 아마도 현재 당신의 마음과 가까울 겁니다. 지면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당신이 만날 지역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다들 안녕!

column 02

나는 네가 여기서,
행복했으면 해



지역에서 행복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문화 프로그램의 한 장면.

U-TURN

"도시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과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청정지역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잠시 둘러보다가,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위 한 문장에 눈길이 갔다. 인생의 어느 한때, 값진 선택을 한 청년들이 지역의 니즈를 충족하는 일들을 할 때, 변화한다? 이럴 수가. 한편으로 '답정너' 같은 질문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이 덜컥 걸린다. 우리는, 아니 나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까?

지난 해 '나는 니가 행복했으면 해(나.니.행)'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북 문경시의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을 청년대상 문화 프로그램으로 풀어냈다. 프로그램 제목에서도, 내용에서도,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방향성은 하나였다.

"다 됐고, 우선 우리가 행복하자"
지역사회가 생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은 결국 지역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개인의 만족감, 자기성장과 직결된다. 지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전과는 다른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구태여 이들이 지역으로 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고령화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 사회는 청년들을 인구 증대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삶의 방식은 늘 변하고 있다. 지역이라는 기회와 경쟁력, 비대면의 가속화, 치열하지만 느슨한 연대감, 서로 연결된 커뮤니티 등은 우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그게 일이든 취미든 사랑이든 덕질이든. 어디에서건 오늘의 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게 아닐까.

나는 3년 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통해 지역으로 유턴했다. 그때는 미리 계산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이곳에서 얻었다. 조금만 눈을 돌려 멀리 내다보면, 지금의 참여는 단순히 '몇 개월의 지역살이 직무경험'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머문 그곳이 각자의 블루오션을 만들 기회임을 전제로, 언제나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은 하나다.
"그곳에서 우리, 아무쪼록 행복했으면 해. 네가 살아가던 방식으로."



글쓴이 **박현희**님은 로컬에서 로망을 만드는 콘텐츠 제작소 경북 문경 LOCALXROMAN(엘오알오), 디자인 스위치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통해 지역으로 유턴했다.

INTERVIEW

김예빈 님 안동브루잉컴퍼니

강아지와 함께 출퇴근 중입니다

김예빈 님을 인터뷰하기로 한 건, '강아지'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에 내려간 청년들의 여러 소식을 듣던 중, 강아지와 함께 출퇴근하는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반려견과 동반출근해도 좋라며 흔쾌히 허락한 그의 '직장생활'이 궁금했고, 강아지랑 함께 라서 처음 하는 지역생활이 덜 외롭지 않았습니. 강아지 이름은 '허니'인데, 이미 회사의 마스코트가 됐다는군요.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마치 친구들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질문과 답을 바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지 모르니까요.

안녕? 먼저 자기소개 부탁해

'허니'라는 이름의 강아지 친구와 함께 안동에서 지역생활을 하고 있어. 현재 크래프트비어를 만드는 안동브루잉컴퍼니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어.

어떻게 강아지랑 출퇴근할 생각을 한 거야?

강아지와 함께 지내는 지역생활을 고민 중이었는데, 대표님이 편하게 회사에 데려와도 괜찮다고 제안해 주셨어, 허니는 소심하고 용감한 성격인데, 남자들을 무서워해(웃음). 다들 허니를 예뻐해 줘서 잘 적응 중이야, 종종 허니와 함께 출퇴근하고 있어. 주말에는 허니와 안동의 강아지 놀이터나 카페에 들러. 요즘엔 안동관광지도를 들고 허니랑 두루두루 여행하고 있어.

서울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

영어와 퍼포먼스 미술 학원 강사를 했어. 코로나로 인해 일하던 학원이 휴원을 하면서 대안이 필요했거든. 마침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동생의 추천으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어. 여기서 지낸 지 거의 3달째인데 서울에 딱 한번 올라갔네. 지금 여기 생활이 좋고 회사도 마음에 들어.



안동브루잉컴퍼니에서 근무 중인 김예빈 님과 회사의 마스코트가 된 강아지 허니



지역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뭐라셨어?

여행을 자주 다녀서 큰 걱정은 안 하시고, 할머니님은 조금 걱정하셨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좋아하셨어. 허니에게는 누나를 잘 지켜주라고 하셨지(웃음).

지난 번 지역에서 청년들과 만났을 때 맥주를 나눠줬잖아. 너의 첫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그 맥주 소개해줄래?

맞아. Yellow Mellow라는 밀 맥주야. 레몬, 생강이 들어가서 상큼한 맛과 마시기 편한 바디감이 특징이지. 레모네이드를 'Yellow Mellow'라고 부르기도 해. 맛이 상상되니? 이름부터 라벨 디자인까지 참여한 제품이 라 더 애착이 가. 옐로우 멜로우? 발음이 귀엽지 않아. 조만간 안동맥주 펍(Pub)을 오픈할 예정이니 그때 놀러오면 '옐로우 멜로우'를 만날 수 있어.



네가 지역생활을 통해 정말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 20대에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고 여행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어느 정도인지 그 방향과 정도를 잘 몰랐어. 이번 지역생활의 시간 안에서 나의 성장과 정체성을 더 알아가고 싶어. 지금이 내 인생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하며 힘을 얻고 싶어.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 동료와 친구들에게 한마디!

좋은 날, 좋지 않았던 날, 모든 날이 다 즐거운 기억으로 남길. 다들 잘 살아보자!

youthstay diary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



우리 자주 만나요~~

강원 청년 모임

지역별 청년간담회에서 얼굴 보고 소식 들어 너무 좋았어요.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반가웠어요!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홍성도농교류센터 조형욱 님

콘트라베이스 전공을 살려 홍성에서 지역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음악으로 지역공헌활동 중입니다.



청년 네트워킹의 시작

정석록, 이유진, 이재성 님

다들 네트워킹 하시나요? 우리 셋은 근무지가 강릉이라 휴일에 근처 바다에 놀러 갑니다. 서핑도 배우고요.

* youthstay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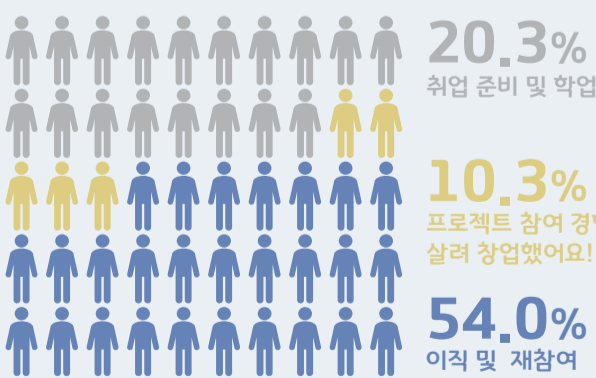
조사기간 _ 2020년 5월 15일 ~ 5월 29일

조사참여 _ 청정지역프로젝트 참여청년 155명, 지역기업 42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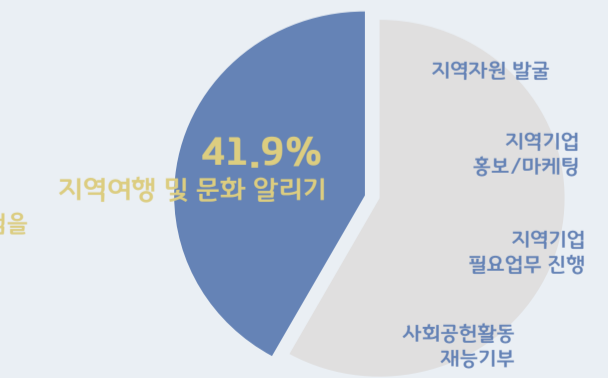
01 지역 기업은 왜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요?



02 1기 청정지역프로젝트 종료 후, 청정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03 지역 상생을 위해 청정이들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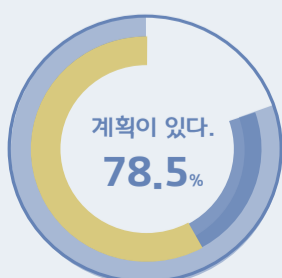
04 도시청년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중복 응답)

일부 정규직 채용

57.1%

모두 정규직 채용

21.4%



05 도시청년들은 청정지역프로젝트에 왜 지원했을까요?

다양한 경험 커리어 확장
지역생활에 대한 관심
탈서울
취업
활동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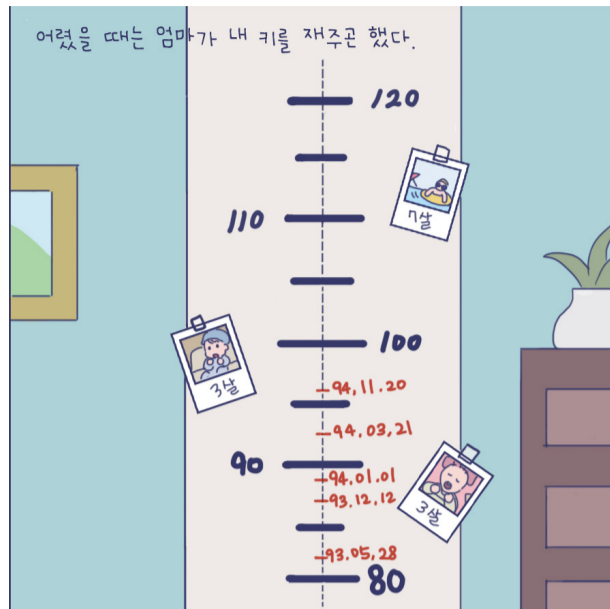
0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의 급여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있다 80%

최대 금액 월급의 20%

이 곳에서 내 키는 몇cm 일까



그림을 그린 성지현 님은 디자이너이자 애니메이터이다. 경북 상주 알브이핀에서 할머니들의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는 마르코로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letter

지역생활자의 편지

여기서, 계속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야기 하나, 지역생활의 시작

여느 귀촌러가 그렇듯, 막연히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며 경상북도 상주에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청정지역프로젝트를 통해서였죠. 서울이 정답이 아닌 건 알겠는데, 막상 살아보니 상주도 정답은 아니어서 당황하고 울컥거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답은 없구나', 그 말을 몸소 깨닫기 위해 계속 살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으려나 생각했지만, 역시 살던 대로 삽니다. 여전히 배달 음식을 먹고 스타벅스 신메뉴가 궁금합니다. 여전히 원룸에 살고 매일 택배가 도착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래도 매일 지역을 보고 지역을 만납니다.

상주는 너무 좁고, 사방이 서울 청년을 염려합니다. 여긴 왜 왔는지, 뭐 먹고살 건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평생 해온 심오한 고민인데 참 내놓고 묻습니다. 때론 못 견디게 답답하다가도 계절마다 바뀌는 논밭의 풍경,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낮고 촌스러운 건물들, 골목에서 나는 쿼퀴한 시골 냄새, 텅 비어 있는 시골 버스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다시 또, 잘 살아 보고 싶어집니다.

이야기 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상주에는 청년이 적습니다. 처음 지역에 내려와서 상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내려와 살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와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서울에는 얼마나 청년들이 많나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반짝반짝 빛나고 통통 튀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다른 사람들과 늘 경쟁, 경쟁, 경쟁입니다. 그런데 처음 지역에 오면 일단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환영받아요. 젊으니까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꼭 뭘 해서가 아니라 청년이 워낙 없으니까 뭘 하나 해도,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 다르다' 하시며 좋아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아요. 내가 꼭 필요한 존재 같거든요. 물론 이 자체가 삶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요.

이야기 셋, 소도시지만 소중한 풍경과 나의 약속

저는 시골까지 내려와서도 여전히 따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어중간한 사람입니다.

시골집을 푹푹툭툭 고쳐가며, 할매·할배들과 어울리며, 직업을 바꿔 농사를 지으며, 땅에서 깨닫고 배우며, 서울의 삶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 내려와 힙한 가게를 창업하고,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고, 그래서 지역을 바꾸는 에너지 넘치고 반짝거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상주에 내려와서는 어쩐지 이전과 180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며 지역의 청년문화를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쩐지 아직은 남의 옷처럼 느껴집니다.

저의 일상은 소소합니다. 서울에서와 다르지만, 또 한편으론 그대로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 왔던 일을 하면서 그때 그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즐거울 것'이 현재의 제 목표가 되려나요. '지역에 내려와서 뭐 먹고 살아야?'를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듣고 용기가 났던 말을 전합니다.

"서울서 뭐하셨어요? 여기서도 그거 하시면 돼요."



편지를 쓴 박은정 님은 글 쓰는 사람이다. 현재 경북 상주 상주다움협동조합에서 도농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며 콘텐츠를 만든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지역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조만간 디자인하는 친구 키티와 함께 지역생활의 일상과 풍경, 고민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청정지역 프로젝트 참여청년 & 기업

강원/제주

고한준 (세종힐링의원, 강원 춘천시) 국은지 (영월문화재단, 강원 영월군) 김남희 (소호259호스텔, 강원 속초시) 김남희 (영월군 사회적경제협의회, 강원 영월군) 김신복 (속초스쿠버센터, 강원 속초시) 김해주 (동네방네 협동조합, 강원 춘천시) 남요셉 (영월광고기획, 강원 영월군) 두송희 (속초 크래프트루트, 강원 속초시) 박성민 (하슬라아트 젊은달Y파크, 강원 영월군) 서한샘 (영월문화재단, 강원 영월군) 손예지 (영월군 스포츠클럽, 강원 영월군) 신예랑 (하슬라아트 젊은달Y파크, 강원 영월군) 안소영 (빛나는 날들, 강원 속초시) 유의태 (소호259호스텔, 강원 속초시) 윤은애 (소호259호스텔, 강원 속초시) 이건희 (강원도협동조합 감자, 강원 속초시) 이성우 (속초스쿠버센터, 강원 속초시) 이유진 (기린아, 강원 강릉시) 이재성 (기린아, 강원 강릉시) 장석구 (크래프트유니온, 강원 속초시) 전나은 (더뉴히어로즈, 강원 춘천시) 정석록 (기린아, 강원 강릉시) 정승민 (더뉴히어로즈, 강원 춘천시) 조상화 (영월군 스포츠클럽, 강원 영월군) 조연실 (고구마쌀롱, 강원 속초시) 진상연 (세종힐링의원, 강원 춘천시) 홍성환 (세종힐링의원, 강원 춘천시) 고나경 (해녀의부엌, 제주 제주시) 김도원 (해녀의부엌, 제주 제주시)

경북/대구

강다솜 (청년연구소, 경북 청송군) 강석화 (가나다라브루어리, 경북 문경시) 강유진 (리플레이스, 경북 문경시) 권준형 (오미자밸리, 경북 문경시) 김나연 (경북 친환경영농조합법인, 경북 군위군) 김도근 (킹스파머스, 경북 포항시) 김성은 (뷰티풀홀리데이, 경북 문경시) 김연희 (디자인스위치, 경북 문경시) 김예빈 (안동브루잉컴퍼니, 경북 안동시) 김재우 (메인정보시스템, 경북 포항시) 김지수 (경북 햇살영농조합, 경북 영천시) 김지혜 (에이치엠, 경북 영천시) 김진형 (가나다라브루어리, 경북 문경시) 김철근 (휴네스트, 경북 영덕군) 김태우 (우성파워텍, 경북 의성군) 박노준 (키워드랩, 경북 경산시) 박민섭 (킹스파머스, 경북 포항시) 박수완 (휴네스트, 경북 영덕군) 박은정 (상주다움협동조합, 경북 상주시) 박종원 (키워드랩, 경북 경산시) 변장주 (알브이핀, 경북 상주시) 서미진 (고타야, 경북 안동시) 성지현 (알브이핀, 경북 상주시) 송정민 (킹스파머스, 경북 포항시) 신영은 (엔젤플라워, 경북 안동시) 안주원 (가나다라브루어리, 경북 문경시) 양연정 (디자인스위치, 경북 문경시) 양지애 (씨티컴퍼니, 경북 상주시) 유지은 (편안동, 경북 안동시) 윤경환 (화신정공, 경북 칠곡군) 이민욱 (밀과노닐다, 경북 안동시) 이역희 (산주짓수, 경북 구미시) 이연화 (청년연구소, 경북 청송군) 이지혜 (고타야, 경북 안동시) 이진기 (경북 친환경영농조합법인, 경북 군위군) 장철완 (밀과노닐다, 경북 안동시) 정아름 (휴네스트, 경북 영덕군) 조하은 (리플레이스, 경북 문경시) 조하준 (고타야, 경북 안동시) 조현주 (청송시니어클럽, 경북 청송군) 지서구 (경북미래문화재단, 경북 안동시) 현수룡 (키워드랩, 경북 경산시) 홍지영 (청년연구소, 경북 청송군) 홍지훈 (산주짓수, 경북 구미시) 황민건 (리플레이스, 경북 문경시) 김도형 (메이드인피플, 대구 북구) 김예한 (메이드인피플, 대구 북구) 이규희 (대구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대구 달서구) 이진호 (대구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대구 달서구) 이지향 (대구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대구 달서구)

부산/울산/경남

강선영 (엘이디소프트, 부산 동구) 광영화 (새반석컴퍼니, 부산 동래구) 김경호 (오난코리아, 부산 해운대구) 김민서 (날개상사, 부산 남구) 김소민 (알티비피얼라이언스, 부산 영도구) 김인아 (위다스, 부산 부산진구) 김지혜 (브라운브라더스, 부산 부산진구) 김하림 (미스터멘션, 부산 해운대구) 문유정 (알티비피얼라이언스, 부산 영도구) 문혜영 (이벤트커넥터, 부산 수영구) 배지연 (알티비피얼라이언스, 부산 영도구) 배한나 (오난코리아, 부산 해운대구) 서정훈 (캔슬마켓, 부산 수영구) 서혜림 (더블레스문(THE BLESSEDMOON), 부산 강서구) 손동현 (코어무브먼트, 부산 남구) 안경미 (공유를위한창조, 부산 동구) 안지균 (캔슬마켓, 부산 수영구) 양미란 (로망, 부산 해운대구) 오지선 (현대페이, 부산 해운대구) 오하영 (프리랜드, 부산 부산진구) 윤경식 (브라운브라더스, 부산 부산진구) 윤준영 (날개상사, 부산 남구) 이세리 (이바구캠프, 부산 동구) 이은수 (공유를위한창조, 부산 동구) 이의정 (위다스, 부산 부산진구) 이혜정 (현대페이, 부산 해운대구) 정혜원 (더블레스문(THE BLESSEDMOON), 부산 강서구) 조미경 (더블레스문(THE BLESSEDMOON), 부산 강서구) 조미혜 (새반석컴퍼니, 부산 동래구) 최은영 (미스터멘션, 부산 해운대구) 최지혜 (이런식, 부산 중구) 최하은 (짐캐리, 부산 동구) 한예은 (엘이디소프트, 부산 사상구) 허준 (코어무브먼트, 부산 남구) 박수연 (우시산, 울산 남구) 김진희 (재단법인 행복마을, 경남 함양군) 노승민 (케이데이터랩, 경남 창원시) 배수인 (재단법인 행복마을, 경남 함양군) 손승희 (아띠캔들, 경남 창원시) 유상원 (아띠캔들, 경남 창원시) 정성업 (재단법인 행복마을, 경남 함양군)

전라/충청

강영찬 (포스댄스컴퍼니, 전북 전주시) 김도균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전남 영광군) 김선필 (장수도개비동굴김치, 전북 장수군) 김세린 (장수도개비동굴김치, 전북 장수군) 김애린 (액션하우스, 전북 익산시) 박찬엽 (전주YMCA(기독교청년회), 전북 전주시) 박희원 (한국천연염색 숭, 전남 보성군) 성동엽 (공장공장, 전남 목포시) 송건우 (포스댄스컴퍼니, 전북 전주시) 신희우 (전주YMCA(기독교청년회), 전북 전주시) 양봉현 (전주한옥마을 지헨즈, 전북 전주시) 염보경 (한국천연염색 숭, 전남 보성군) 우지혜 (물숲마을농촌체험관광협회의, 전북 무주군) 이대찬 (농업회사법인 훈이네한과, 전북 진안군) 이용범 (포스댄스컴퍼니, 전북 전주시) 이우석 (이노컨, 전북 전주시) 이주현 (누이 단팥빵, 전북 전주시) 이창민 (임실치즈마을, 전북 임실군) 이효정 (농업회사법인 누리, 전북 익산시) 장태환 (포스댄스컴퍼니, 전북 전주시) 전준성 (농업회사법인 고마미지, 전남 강진군) 정지은 (액션하우스, 전북 익산시) 정현호 (장수크래프트브루어리, 전북 장수군) 정현명 (포스댄스컴퍼니, 전북 전주시) 조성환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전남 영광군) 조현진 (전주한옥마을 지헨즈, 전북 전주시) 최유림 (전주한옥마을 지헨즈, 전북 전주시) 최혜인 (목포대어울림아카데미, 전남 무안군) 한재호 (한국천연염색 숭, 전남 보성군) 황다원 (목포대어울림아카데미, 전남 무안군) 김복은 (오가닉메이커협동조합, 충북 괴산군) 김진아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배서우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변진형 (네이처팜바이오, 충북 괴산군) 선정문 (스카이배너, 충남 부여군) 이규상 (혜안, 충남 부여군) 이지희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 충남 홍성군) 이혜준 (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 충북 괴산군) 정도희 (오가닉 메이커협동조합, 충북 괴산군) 조성중 (스카이배너, 충남 부여군) 조형식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조형욱 (홍성도농교류센터, 충남 홍성군) 한종원 (괴산한살림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황서연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충북 괴산군)

우리, 같이 걸을까

현재 청정지역 프로젝트에는 도시청년 164명, 지역기업 98곳, 지역사회공헌기관 66개소가 참여 중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지역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역사회공헌기관

영월군청소년수련관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안예술회 관 장곡신나는지역아동센터 포항빛살지역아동센터 안동시자원봉사센터 (속초)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종달어촌계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꿈자람지역아동센터 온고을지역아동센터 NCC지역아동센터 큰나무지역아동센터 미르벗지역아동센터 안동YMCA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조은나무지역아동센터 보성종합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동래숲지역아동센터 명륜지역아동센터 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 보급자리지역아동센터 엘림지역아동센터 한솔지역아동센터 행복한공부방지역아동센터 대한지역아동센터 보광지역아동센터 새솔지역아동센터 꿈나무수정지역아동센터 하늘가람지역아동센터 진안꿈동산지역아동센터 은산지역아동센터 로템나무지역아동센터 스마일지역아동센터 멧쟁이지역아동센터 옥야지역아동센터 갈산지역아동센터 보성지역아동센터 나들목지역아동센터 아리솔지역아동센터 반석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영덕분관 희망지역아동센터 사리지역아동센터 울산신나는아동쉼터 속초 어울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월외리마을회관 속초 YMCA 강릉 청소년 수련관 다솜지역아동센터 광안해늘지역아동센터 수달지역아동센터 민들레지역아동센터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춘천여성협동조합 청송시니어클럽 재단법인행복마을 여행자마켓 메이드인피플 외서마을 문화자립사회적협동조합 영월군스포츠클럽 산주짓수 버스로그릭 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 키워드랩

함께 걷는 사람들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김의승 신종우 박원근 이재영 이정순 권규진 정기룡 박광열 통합 운영사무국(점프) 이의현 이유리 강승민 김결 한아름 이권민 박형호 이지영 김은설 지역사무국 오요리아시아(강원/제주) 이지혜 명경화 최원민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경북/대구) 박명배 손세아 김진경 권민정 박재연 최재혁 기술자숲(부산/울산/경남) 공태영 이하나 이성애 노란 협동조합 주인(전라/충청) 임지선 안경희 김영룡 고예린

